



Global Partners USA, INC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 714.774.9191 Fax. 714.774.9192

E-Mail: admin@gpusa.org yoonsnews@protonmail.com Homepage: www.gpusa.org

메리의 할머니 즈르갈 에제가 어제 2022년 12월 10일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던, 홀로 7명의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말입니다. 사인은 당료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진탕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이디어네 방문했다가 그 뒷집 메리네 마당에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오가는 걸 보고 무슨일인지 물었지요. 건강이 좋지는 않으셨지만 이리 빨리 가실 줄 몰랐습니다. 나보다 겨우 서너살 위일 뿐인데 이세상에서 온갖 고생과 근심 걱정속에서 지지리 궁상맞게 사시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일곱을 남겨놓고 홀연히 가셨습니다. 남겨진 일곱 손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의 자녀가 몇 있는데 둘은 러시아로 일하러 가고 딸이 근래 집에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삶에 깊이 관여하진 않았지만 소량의 생필품을 들고 가끔 만나는 것 만으로 할머니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을 거라 짐작해봅니다. 그러니 매번 그리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가끔 우리를 붙들고 신세를 호소하시며 눈물짓던 일도 기억납니다. 우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모터를 부탁하셨던일이나, 가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서서 뵈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밀가루 기름등만 남겨놓고 돌아나오던 일도, 지난번 단기 촬영팀 방문에 응하셔서 인터뷰한 모습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만손녀가 부끄러워 장롱에 숨어있다가 인터뷰가 길어지니 수줍게 나와서 우리를 놀래켰었지요. 갑작스런 할머니 소식에 저희는 놀라 할 말을 잃어 그저 어찌냐만 반복합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살길이 열리겠지요. 할머니의 보살핌아래 함께 살던 일곱 (사촌) 아이들이 흩어지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이곳에 이렇게 태어나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사그러졌습니다. 태어나는 건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의지가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이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근래 방문시마다 일하러 나가셔서 뵈지 못했는데 갑자기 떠나셔서 인사도 제대로 못드렸네요. 떠나간 에제와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즈르갈 에제, 안녕히가세요.

...

계획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서 편지쓰기 싫었습니다. 원하던 서류를 구비하는 절차도 저희가 영주권 취득후로 일단 미뤄졌고, 필요한 고용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하던 자매는 재택근무만 고집해서... 여기까지만하기로 몇주전 합의했습니다. 교사를 구하는 것도 '도시가 아니라서', 우리가 정말 원했던 사람은 '월급이 맞지 않아서', 혹은 저희쪽에서 기대하는 실력이나 기준에 미달이어서, 누구는 너무 먼 곳에서 온다고 해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공부가 인생에 다는 아니지만, 어쩌면 어떤 공부냐의 차이이지 공부를 인생에서 떼어낼 수는 없을텐데,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너무 적네요. (하기야 저도 공부가 싫ㅇ...)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무료지만 공부하는데 필요한 material 등을 명목으로 contribution fee 를 소액 내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은 낼 수 있는 금액인데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이유로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소문듣고 찾아오는 소수의 아이들에게 아내는 한국어,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지아 방문시 교육 베테랑 선생님의 “무료로 하지 마라” “소수로 시작하라”는 조언이 옳게 여겨졌는데 무료로 하지 않으니 의도치 않게 “소수로 시작하라”는 조언도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입니다.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여기부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 보렵니다.

...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 가운데 나기마와 바야나가 사촌입니다. 한 집을 둘로 나눠, 한 쪽에는 나기마와 세자매 그리고 엄마가 살고 있고, 한 쪽에는 바야나와 남동생, 엄마, 할머니 그리고 삼촌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5학년인 바야나는 엄마가 아침 7시 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러 나가고 자신이 온 가족의 음식을 만듭니다. 나기마는 아직까진 그냥 친구들 따라 놀러오는 모양새이고, 바야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영어도 친구들에 비해 곧잘 합니다. 그래봐야 아직도 알파벳조차 몇 개 틀리는 수준이지만. 반면, 엄마가 학교 수학 선생인 아이비케는 공부도 가장 잘하고 여유있는 모습이 자신감 있어보입니다. 부모와 살고 있고 가정 형편이 제일 나아보입니다. 아이들의 형편을 알게 되니 잘 가르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꾸준히 왔으면 좋겠는데 집이 너무 멀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한국의 아이들 몇 그룹을 사진으로 보내주면서 프린트해달라고 부탁하는 천진난만한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키우고 떳떳하고 자신감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길 바랍니다.

제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눈에 띄어 적어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11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삼남매 엄마 이야기 (42)

센터를 오픈해서 시간표를 발표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올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 특별활동 시간 맞춰서 운전하던 경험에만 비춰 생각했나봅니다. 원래 공부하던 아이들이 매번 일찍 와도 되냐고 수업시간을 변경합니다. 아니 약속한 시간에 와야지 왜 매번 시간을 바꾸나.... 답답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 아이들의 환경을 생각해보면 집에 갔다가 제 시간에 오라는 소릴 못합니다. 아침에 30분 넘게 걸어서 10분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온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를 구하지 못해 매일 두세과목은 수업을 하지 않고 일찍 끝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집에 갔다 오라는 말은 안 와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미국에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까지 시간맞춰 라이드를 해주던 저의 경험만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안에 있다고 해도 제 생각과 경험은 이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게도....

옆동네, 다른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 학교 마치고 바로 올테니 수업할 수 없냐고 묻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침에 30분 넘게 걸어서 학교에 갔다가, 학교 마치고 우리 센터까지 한시간 걸리는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하겠다는데 제가 먼저 '너희들은 멀어서 못할거야' 라고 선을 그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시작했습니다. 시작한지 한달도 안되서 키르키즈 모든 공립학교가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1월 중순까지 문을 닫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작은 시작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같이 공부하던 아세마가 봄부터 어지러워서 잘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종합비타민이라도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검사한번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날 학교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니, 검사를 받았는데 간질이라고 합니다. 믿기 싫은 어머니와 무서운 아세마가 한국 의사를 만나볼 수 없겠냐고 부탁해서 이곳에 계시는 한국선생님께 검사결과지를 가져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뇌파검사 에서 간질이 잡히고, 처방된대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만두도 만들어주고, 센터 청소도 같이 해주던 밝은 소녀에서 이제 학교에도 맘편히 못가는 아세마에게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5학년때부터 저랑 같이 공부하던 벡뚜르가 칼리지 2학년 (11학년)이 되었습니다. 칼리지에서 연극발표한다고 꼭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벡뚜르 엄마와함께 연극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멋지게 한국어 연극을 발표하는 벡뚜르가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마친 후에 벡뚜르 어머니가 아이에게 좋은 길을 안내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더 좋은 길, 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모든 소소한 소식들은, 지난 주간에 들은 즈르갈 에제의 별세소식에 다 묻혔습니다. 베델에서 상영된, 이 동네 소식들을 담은 저희 영상에 소개된 적이 있는 할머니 입니다. 며느리 둘은 떠나고, 딸들도 이혼해서 네 자녀의 손주 일곱을 혼자 키우시던 할머니. 매일 아침 7시에 건물청소하러 나가시고, 한시에 돌아와서 아이들 돌보시던, 아직 환갑도 되

지 않은, 손주들을 먼저 알아서 할머니로 만났지만 알고보면 아직 젊은, 딱히 더 나올 것이 없는 우리에게 본인의 어려움이나 필요를 맘편히 알려주시던 아줌마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졸업식에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인사와 선물을 대표로 전해주셨던 학교일에도 열심히 할머니셨는데, 아이들이 겪을 상실감과 아픔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장례가 끝난 집에 방문했습니다.(이곳은 장례후 한달동안 손님을 맞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한 웃음으로 우릴 맞이 했고, 그간 보지 못했던 딸과 아들이 왔다고는 하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흠어질지, 누가 남아서 이 아이들을 돌볼지, 즈르갈 예제는 떠나는 길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눈에 밟혔을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좋은 어른이 될지, 아무것도 모른채 멍멍한 생각만 가득합니다.

기도해주세요

1. 저학년 영어와 산수 learning program 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이 속히 진행되도록
2. 신실하고 실력있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3.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이 끝까지 열심히 참여하기를
4. 가족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후원안내

<미주>

Check를 GP회사로 보낼 경우

Pay to : (GP USA) 그리고 Memo 란에 (K14, 윤재웅, 현순)

GP회사주소 :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Paypal 을 이용하실경우

www.Gpusa.org에 방문하셔서 오른쪽 위 메뉴의 GIVE 버튼 클릭,

2번 DONATE > 버튼 클릭후 인포메이션을 작성하시면됩니다.

Selected missionary는 “K14 화평, 회복”입니다.

GP회사Tel : 714-774-9191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KEB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990-090820-517 (예금주 : 윤재웅)